

대입 수시전형의 오해와 진실

무조건 상향 지원? 수능 낭패 조심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오는 8일부터 시작된다. 수시전형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을 찾고, 지원전략을 세우는 일도 만만치 않다. 지원전략을 세우기에 앞서 먼저 올해 수시모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간혹 잘못된 생각으로 준비 없이 수시에 지원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수시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풀어보자.

유리한 전형요소 찾아 ‘맞춤지원’을 모든 전형 학생부 기본 성적은 필수

◇수시는 모집인원이 많기 때문에 정시보다 합격하기가 쉽다? =올해 수시에서는 전체 모집인원의 61.6%인 23만 525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정시보다 분명 많은 인원이지만 전체 모집인원의 증가가 합격 가능성까지 높이는 것은 아니다. 대학의 전체 모집인원이 증가한 것인지, 내가 목표한 전형의 모집인원이 증가한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종합학력자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그 인원만큼 정시로 이월돼 정시모집 인원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모집인원의 증가로 합격의 수월성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학생부 성적이 안 좋으면 수시에 지원할 수 없다? =교과성적 우수자, 학생부 우수자 등 학생부 중심 전형에 지원하려 한다면 물론 학생부 성적이 당락을 좌우할 것이다. 하지만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 외에 다양한 전형요소로 수험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자신이 유리한 전형요소를 찾아 지원하면 얼마든지 합격을 노려볼 수 있다.

◇논술로 낮은 학생부 성적을 만회할 수 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낮은 학생부 성적을 논술 등의 전형요소로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일부 대학의 논술 중심 전형이나 적성검사 전형에서는 대학별고사로 부족한 내신성적을 뒤집는 경우

가 있지만, 학생부 성적이 모집정원 점수대에 근접할 경우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부 성적은 기본이다.

◇수시 지원은 일단 많이 할수록 합격률이 높아진다? =수시모집은 정시모집과 다르게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어서 많이 지원하면 할수록 합격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수시 지원 시 목표 대학과 전형에 따라 몇 개를 그룹으로 묶어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에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지원할 수 있는 횟수는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정답은 없지만 본인인 수시형이라고 판단될지라도 무리한 ‘몰지마 식’ 지원보다 전형을 4~5개 정도로 압축해 지원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정시형이라면 수시에 1~2개 정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시는 상향지원을 해야 한다? =물론 정시라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고, 수시에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에서 안정 지원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무조건 상향지원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올해는 많은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수능 성적을 고려하지 않은 상향지원은 자칫

그 동안 들인 노력과 시간을 헛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수능 성적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약간 상위대학에 지원해야 한다.

◇학생부 성적이 안 좋아도 비교과나 수상실적이 많으면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입학사정관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에서는 비교과 성적이나 수상실적 등을 비중있게 평가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형에서도 학업에 대한 열정이나 학교 생활태도, 전공적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 잣대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다.

예를 들어 비교과 실적이 많다는 이유로, 일반전형 기준으로 2등급대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한다 해도 합격은 기대하기 어렵다. 어느 전형이든 학생부 교과 성적은 기본임을 명심하자.

진학사 김희동 입시분석실장은 “수시모집은 운에 따라 합격, 불합격이 좌우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시는 운이 아닌 본인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명확한 지원전략을 수립해야만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수기자 lucky@kwangju.co.kr



수능 모의평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2일 광주시 남구 주월동 대광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조선대학교 해외 우리말 사랑 운동 모태 청송문학상 백일장 수상작 작품집 발간



10여년 동안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들의 우리말 사랑과 조국애의 모태가 되고 있는 ‘청송문학상 백일장’의 역대 수상작들을 한데 모은 작품집이 나왔다.

작품집에 실린 수상작들은 청송문학상 백일장 1~10회 작품들로 조선족 학생들의 우리말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 고국에 대한 그리움, 희망 등을 품은 시·수필·산문이다.

청송문학상 백일장은 지난 1997년 조선대 신문방송사 주간이었던

이성연 교수와 연변대학 최용린 교수가 중국 동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일장을 개설하기로 의견을 모은 이후 매년 한차례씩 치러지고 있다.

1회 백일장은 당시 외대 교수였던 전호종 총장이 행사의 취지를 듣고, 예산 전액을 기부해 이뤄졌다. 이후 조선대 신문방송사와 연변대학이 공동주최하는 청송문학상 백일장이 올해 12회를 맞았다. 더 나아가 양 대학을 결연을 맺었으며, 이에 따라 연변대 출신 인재

들이 조선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재중국조선대동창회’가 조직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호종 조선대 총장은 ‘청송문학상 수상작품집’ 발간사에서 “수상작품집 발간은 지난 11년간 청송문학상의 결실을 보존하고 소중한 민족문화으로 승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이자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글 세계화 사업 차원에서 대단한 의미깊은 성과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광주·전남 첫 미용학박사

광주여대 2명 학위 수여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장원) 대학원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최초로 미용학 박사 2명을 8월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배출했다.

이번에 학위를 받는 주인공은 박정연·박정신씨로 2007년 3월 박사학위과정을 시작해 3년 6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용학 분야 박사 학위가 개설한 대학은 전국에 4곳 밖에 되지 않는다.

박정연 박사는 ‘Self, Swedish-stone Massage가 노인여성의 피부상태에 미치는 영향’로 각각 논문심사를 통과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교대 모든 강의 공간 미술관화 학생회관 복도에 대형벽화

광주교육대가 학생회관 복도 벽면에 영산강 옛물길을 복원한 대형벽화와 각종 회귀 동식물 그림들로 가득 채운 벽화로 단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교대는 최근 학내 학생회관(4층)의 건물 전체를 단장해 재개관식을 가졌다. 교대는 모든 강의 공간을 미술관화 한다는 목표 아래 3층 내부 벽면을 거의 할애해 영산강 동심의 옛 물길을 대형 벽화로 복원했다. <사진>

또한 미술교육과 학생들의 졸업작품 500여점을 학생회관 전 공간에 골고루 내걸었음 뿐만 아니라 공간을 적절히 안내해 소규모 벽화도 배치했다. 또 각 학과 및 동아리방 복도에 멸종위기의 영산강



동식물들을 불러 들였으며, 학생 휴게실의 의자와 탁자 등도 하나같이 예술작품들로 교체했다.

학생회관 벽화 제작을 총 감독한 정 인수 대학원장은 “학생회관 벽화는 학생들에게 예술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잠재해 있는 미적 감수성과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을 일깨우고, 미래의 교사가 갖춰야 할 꿈과 실천 의지를 심어주는 데 그 뜻이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공교육 모델 ‘무지개학교’ 8곳 운영

전남도교육청 하반기 40개 핵심사업 발표

전남도교육청이 2학기부터 무지개학교 시범운영 등 민선 취임 이후 새로운 교육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일 장만재도 교육감 취임 2개월을 맞아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도입 등 하반기 전남교육 핵심 사업과 프로젝트 등을 밝혔다.

핵심사업은 교육여건 개선·질 높은 학교교육·지원하는 교육행정·행복한 학생과 교원 등 4개 주제, 40개 사업이다.

도 교육청은 내년 3월 인사부터 공정·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새로운 인

사시스템을 마련, 운영하기로 했으며 최근 정기인사에서 부분적으로 권역별, 학교 규모별 순환원칙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첫 도입한 교육장 공모제는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 임기내 50%까지 확대하고 학업성취도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개선방안을 만들어 불필요한 논쟁과 혼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역점 공약인 새로운 공교육 모델 창출을 위한 무지개학교는 2학기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3곳, 고교 2곳 등 8곳이 시범 운영된다.

학교구성원이 교육현장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무지개학교는 도시형·농촌형·도시근교형으로 나눠 운영하고 내년에는 2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역점 사업인 학교 공문 50% 줄이기를 추진, 내년부터는 870여개 모든 학교에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 교사 업무 부담을 확 줄이고 학교내 비정규직 처우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교육 안정을 위한 교원정원 감축 중단, 교육청 차원 첫 시도인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지역교육청 조직개편 등도 이미 추진했거나 추진할 계획이다. /박진수기자 lucky@kwangju.co.kr

